

# 모정건축이 갖는 건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Means of Mo-Jung

김 학 삼\*  
Kim haksam

### ABSTRACT

The study background is that Mo-Jung happens as the produce of the agricultural society but it is not easy to find it beside Ho-nam area. Because of this, it results from understanding the constructional meaning, happening time, and regional cause the Mo-Jung construction has.

The study progress is to understand the happening time of Mo-Jung, constructional meaning, and the meaning of Mo-Jung with the investigation method of literature consideration of the village society, data of the existing study, survey investigation, interview, and question through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iation of the village and Dure organization.

1. Mo-Jung construction has the meaning of vernacular construction reflecting the meaning of village community intensively as an element comprising the village, and the territory of Mo-Jung space is revealed as the male space.
2. The economic wealth of the village community and the image reflecting the community sense are stood out.
3. It is the reason why Mo-Jung construction is limited to Ho-nam area and is explained as the life style difference each village community has, the regional characteristic difference Dae-dong play of Yong · Ho-nam areas have, etc. so to speak.
4. It is estimated that the happening time of Mo-Jung is after the 18th century when the agricultural As my suggestion, Mo-Jung construction is the construction phenomenon reflecting the phenomenon of social change directly and it i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approaching the regional housing construction as the life style difference the life community of each area has is reflected. production quantity was increased and Dure organization was activated.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표현의 중요성으로 자신/타인, 정체성/공동체, 사적/공적 등의 대비를 통하여 정체성의 표현과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주거에서 우리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 상징으로 나타나고, 사회·문화적 질서 속

에서 형성화되는 시간적, 공간적 유형에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주거의 의미를 주거의 맥락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생활로 더 넓게 확장시키지 않으면 주거경험은 축소되며, 또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sup>1)</sup>.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모정건축에 대한 연구는 주거경험을 찾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모정의 의미가 연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모정건축에 관한 연구에서 최 재율(1966)은 모정건축<sup>2)</sup>을 호남지역의 농업사회 생산물로서 마을의 경관요소로 설명하였다. 전 봉희 교수는 최 재

\* 정회원 평양대학 건축계열 조교수

울의 모정에 관한 연구를 진전시켜 모정의 건축적 특징, 기능, 입지, 형태, 이용상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sup>3)</sup>하였으나, 지역적 범위의 한계성과 호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접근되지 않았다. 또한 모정건축이 호남지역의 촌락공동체에서 갖는 비주거 건축에 대한 의미분석이 미비하다. 이에 모정건축에 대한 연구는 촌락공동체의 생활확장으로서 주거건축과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모정건축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주거건축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로서 의미와 배경을 가지는 것이다.

모정건축 연구를 기술공학적 측면의 접근보다는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접근으로 한다. 이는 특정요인에 의하여 형태나 유형이 결정된다는 건축적 의미를 단순화하는 것<sup>4)</sup>보다는 “형태는 기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따른다”(form did not follow function, but followed social meaning)<sup>5)</sup>는 접근방향으로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은 모정건축의 의미에 대한 물리적 분석과 분석된 물리적 내용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서 모정의 발생시기, 지역적 한계를 갖는 요인, 마을에서 모정이 갖는 의미, 건축적 특성과 의미를 찾는 데 목적을 가진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역적 범위는 마을공동체가 갖는 사회·경제·문화의 미시적 특성이 반영되는 모정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지역의 평야, 해안, 산간지대의 동·서축으로 한정하며, 연구범위는 모정의 발생시기, 지역성, 건축적 특성과 의미, 마을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모정의 입지 현황, 건축적 특성, 이용현황, 발생시기에 대한 연구를 위해 촌락사회의 문헌고찰, 생태학적 접근, 설문, 면담, 실측조사등의 내용을 종합·분석하는 방법으로 한다.

## 3. 연구진행

연구진행과정은 문헌고찰과 기존연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첫 번째, 모정건축의 발생과 사회적 의미를 규명키 위해 촌락분화와 농민층 세력변화과정을 생태학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정발생시기를 유추한다.

두 번째, 촌락에서 모정건축의 특성과 의미를 토착건축으로서 분석한다.

세 번째, 유사한 형태의 정자건축을 모정건축과의 건축의 특성, 기능, 의미의 비교를 통하여 설명한다.

네 번째, 모정건축이 호남지역에 한정되는 이유를 지역공동체의 문화, 생활, 관습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고, 마을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동계, 두레, 마을 굿의 특성을 분석한다.

다섯 번째,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과정에 실측조사와 면담내용을 첨가하여 종합, 분석한다.

## II. 모정건축의 접근방향

기존연구는 기술공학적 측면이 강조되어 공동체 사회에서 갖는 건축적 의미와 기능분석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정건축의 접근 방향을 사회·문화적 측면 접근<sup>6)</sup>으로 한다.

### 1. 촌락분화과정의 고찰

촌락사회사를 고찰하는 이유는 마을공동체에 존재하는 모정건축의 사회적 의미와 발생시기를 유추하기 위한 것이다. 촌락사회 조직의 분화와 농민층 세력변화는 공동체가 주도하는 대동제, 두레<sup>7)</sup>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도시화 이론의 방법 중에서 생태학적 접근의 개념에서 사용되는 공간과 경제적 분화관계를 힘의 균형관계로 설명하는 즉, 지배(dominance)개념으로서 촌락사회의 분화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농촌사회조직은 임란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는 토지제도의 변화, 신분제의 동요, 상업 발달<sup>8)</sup>등

으로 사회전반에서 힘의 균형상태가 변화되는 시기에 조직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를 던컨(1964)의 생태학적 접근방법으로 보면, 생태적 체계는 인간집단, 환경, 기술, 조직을 포함하는 동시에 기능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인 생태적 복합체로서 해석된다. 환경과 기술이 독립적인 변수인 반면에 인간집단과 조직은 종속적인 상태에서 서로 상호작용 한다고 설명<sup>9)</sup>한다. 또한 생태적 복합체의 발전에 환경과 기술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태적 확장은 급속한 기술축적, 환경이용의 강화, 인구변화, 조직혁명으로 설명된다.

인간집단과 조직원이 종속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촌락사회 분화과정에서 농업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과세제도의 변화, 신분제도의 동요에 따른 양반 수의 증가 등을 힘의 균형관계로 파악하여, 공간과 경제적 분화과정이 나타나는 촌락사회에서 기능분업이 발생하는 시기를 모정이 발생하는 시기로 유추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촌락의 분화와 기능분업으로서 두레의 발생과 목적계 등이 활성화되는 시기를 촌락사회사를 통하여 고찰한다.

조선중기의 정치·사회·경제는 재지사족의 향권확보가 목적으로 나타나지만<sup>10)</sup> 16세기 이후 즉, 임란이후는 농업생산력의 발전, 분업의 진전, 신분제의 동요에 따른 원인으로 향촌사회는 전면적인 재편이 요구<sup>11)</sup>되어 중앙정부는 신분제나 공동체 규제를 강화하여 유지하고자 추진한 양역변통책이나 리정법<sup>12)</sup>의 봉건적 부세체제의 강화는 오히려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를 위축, 붕괴시키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또한, 과거 향약, 향규, 향안을 통한 일향지배 보다는 혈연적 족계나 동계 또는 촌락을 기반으로 하는 하층민과의 유대를 통하여 자기 방어를 모색하고, 상·하합계의 동계를 발전시키나<sup>13)</sup> 상·하합계의 촌류조직은 18중엽이후 상·하합계의 동계조직에서 하계조직의 소멸로 나타난다. 이는 두레조직의 강화와 연계<sup>14)</sup>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양법의 발달, 집단노동력의 요구, 소농집단의 부의 축적으로 이어져 촌락분화과정에서 上族들의 동계, 동약은 관념적으로 존재하여, 영향력은 本洞, 本甲에 한정<sup>15)</sup>되게 된다. 대부분의 村契類조직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자연촌 단위 운영과정에서 洞祭도 큰 당이나, 작은 당으로 분화, 혹은 새로 마련하여 독립<sup>16)</sup>된다. 노동조직으로 두레도 마찬가지로 자연촌 단위에 맞게 재편<sup>17)</sup>되어 촌락 전체구성원의 촌계류 조직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계층적 이해를 같이 하는 조직으로 성장한다. 각 마을의 두레조직이 마을의적으로 연계성 가지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두레조직이 사회변혁의 동원세력<sup>18)</sup>이 될 수 있다.

촌락의 분화과정과 촌계의 두레조직의 생성과정<sup>19)</sup>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자연증가와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농지 확대나 분포상에 기인하는 자연 지리적인 배경측면과
2. 촌락의 운영문제나 부세문제등의 주도세력과 분쟁원인이 촌락분화 과정에서 두레 역시 자연촌 구조에 맞게 재편되어 간다.

이러한 두레조직의 모임 장소로 모정, 농청, 우산각, 농막들로 이는 계층적 이해기반을 달리 하는 상천민의 집회장소로 상정된다<sup>20)</sup>다고 한다.

촌락사회를 생태학적 접근을 통하여 인간집단과 조직원이 종속적으로 상호 의존하여 기능분업과정, 두레조직의 발생과 활성화되는 시기를 즉, 두레조직이 사회변동세력으로 나타나는 18세기 중엽이후에 모정이 발생하는 시기로 유추한다.

## 2. 토속건축으로 접근

라포트(1995)는 folk tradition을 사람들의 욕망, 꿈, 정열 뿐 만 아니라, 그 문화의 물리적인 형태, 요구·가치 등으로 직접적이며, 비자의식으로 나타나는 민속건축으로 접근한다.

이는 모정건축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을구성의 살아있는 유기적 공

간으로서 건축적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민중 건축으로서 전승되어진 모정을 토착건축으로 해석하여, 모정의 건축적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설계과정과 건설과정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설계과정에서 토속적의 정의<sup>21)</sup>는 모형들과 조형들 또는 변이들 중 하나이며, 원시적인 건물보다 더 개별적으로 가변성과 분화가 나타난다. 또한 하나의 공유된 어휘를 가진다.

건설과정에서 토속적인 것의 특색은 부가적인 성질, 전문화되지 않은 개방적인 성질, 또한 시각적 개념적으로 고도의 양식을 파괴하려는 부가성<sup>22)</sup>과 기술과 생활수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통의 유·무는 이미지로 공유되며, 소유자와 설계자의 무명성으로 나타나는 집단적 생산물로 나타난다<sup>23)</sup>.

비록, 모정이 공공성을 갖는 비주택의 건축이지만, 건설과정과 설계과정으로 모정건축의 특성을 분석한다. 농업생산방식의 변화와 촌락분화과정에서 나타난 두레공동체 조직이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장소성을 갖는 건축현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징성, 집단적 건설과정과 설계과정에서 모정건축의 표현은 민속전통의 의미를 갖는 토속건축(vernacular architecture)로서 뿐만 아니라 민중건축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 Ⅲ. 모정과 정자건축의 특성비교

모정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모정과 정자의 설립배경을 문헌고찰<sup>24)</sup>하면, 모정은 정자건축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나, 사용과 기능, 건립목적, 건설과정, 상징성, 공동체가 갖는 의미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로, 벼슬을 하거나 공적 있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 본인이나 후손이 건립하여 주변에서 공인을 받으며, 공인을 위하여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하다. 학자들의 詩會등의 일정儀禮가 따르는 반면에 모정은 마을 경제여건에 맞게 공동건

립으로 이루어지며, 공동체의 상징과 필요성에 따라 건립되며, 각 마을간의 위상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정자는 일정지역에서 가문간의 세력에 따른 우세적 장소성을 갖는 반면에 모정은 마을 세력권내에 위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장소성으로 형상화된다.

세 번째로, 정자는 건설시기와 건립자를 알 수 있으나, 모정은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비연대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 모정과 정자는 설계자를 알 수 없으나, 사용과 기능의 차이에 따라 설계과정에 자연관의 반영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섯 번째로, 모정의 규모는 마을의 경제능력에 의해 크기와 칸수 등이 정해지는 반면에 정자는 가문의 세력과 일정 지역내의 가문간의 힘의 변동에 따라 정자의 규모, 위치가 결정되는 차이점을 가진다.

모정과 정자건축의 특성, 기능, 형태 등을 비교·분석한 표1<sup>25)</sup>을 보면, 모정건축의 의미는 형태보다는 건축물이 담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정과 정자건축의 형태의 구분 역시 사회적 기능과 목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모정건축이 정자건축의 형태보다 단순화되고, 고급건축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모정건축의 형태적 유사성은 신분제와 관련하여 계급별 이용자의 차이점으로 인식된다. 이는 촌락분화과정에서 상위계층의 건물을 모방하여 형태보다 기능을 우선하는 건축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된다.

모정의 건설과정과 설계과정은 익명성과 비연대기적으로 나타나며, 마을공동의 재산으로서 다수의 참여로 건설된다. 모정 건축은 대중성과 개방성을 가진 토속적 의미로 해석되며, 마을공동체의 생활을 담는 목적성을 가지는 건축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로 해석된다.

표 1. 모정과 정자건축의 비교

	정자	모정
	공공 또는 반공공적	공공적
현대전승	●	●
지역 특성	전국적	지역적(호남)
장 소 성	전통적인 미적 가치관의 경관으로 강.계곡:연못,산마루,언덕,가택내	종교적기능: 당산나무 근처 마을 공동체: 마을세력 권내 구전학습장소: 마을 진입구 농로의 교차점 또는 마을의 중심
기 능	휴식,놀이,음풍농월,학문수양.政社,생활,강학,제,禮	공동집회,공동노동,휴식, 오락,노동중심의 휴식장소, 동신제등 결부된 종교적 기능, 구전학습장소
소 유	개인소유,문중,유교적 집단, 관리 사용	마을공동 소유, 사용, 관리
형태,재료	고급건축 정형화된 재료 기와, 단청사용,	민속건축 부정형의 재료 조가
설계과정	Grand design tradition	소설계 전통
사용시기	봄, 여름, 가을	동사철-공동노동과 휴식, 회의
상 징	가문과 지역공동체 세력과 부의 상징	마을공동체의 모임
이 용 자	남성	남성

#### IV. 지역성의 요인

호남지역에서 모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촌락사회변화와 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레조직과 목적계의 등장, 활성화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촌락공동체 조직의 문화를 반영하는 범주 속에서 洞祭, 鄉約, 두레, 촌계류 조직이 갖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사회, 문화, 관습 등의 생활방식차이로 지역성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촌락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촌계류 조직의 기능변화<sup>26)</sup>과정 속에서 곳의 범위<sup>27)</sup>안에 洞祭, 대동놀이, 두레 등을 포함하여 영·호남地域共同體의 사회·문화적 지역특성을 파악한다.

두레 곳과 마을곳<sup>28)</sup>은 문화와 관습을 매개로 한 민속예술의 분화로 나타나며, 또한 농민조직이 생산해낸 同契의 분화과정과 일치하므로 양

쪽 지역 문화와 관습 차이를 비교분석<sup>29)</sup>하여, 지역성의 여러 원인 중에서 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민속예술로서 대동놀이가 갖는 기능은 집단적 놀이과정이며, 생산과 놀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노동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대동놀이의 목적은 마을공동체의 요구인 사회통합, 갈등해소, 공동체연대, 제축의 반란 등의 마을공동체의 요구와 일치하는 것<sup>30)</sup>으로 나타난다.

표2는 영·호남지역의 대동놀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표 2. 영·호남지역의 대동놀이 비교

	호남	영남	비고
축원 풍물	당산굿등 마을굿	별신굿 마을굿	당산굿:두레풍물의 뿌리로서 순수농민에 의해 진행 별신굿:무속적 측면
노작 풍물	모내기굿 김매기굿 두레굿	뫼기굿 두레굿	영남:씨외 적극 개입 호남: 농민의례 형태
연예 풍물	관굿 잡색놀이	농촌탈춤 탈놀이	호남:연예풍물로잡색을 통한 대동놀이의 사회적 기능 발전 영남: 탈놀이 강화
절립 풍물	마당밧이	지신밧기	마을곳의들 놀이, 두레곳의 농사순방을 모체로 한 대동놀이

호남지역의 특성은 넓은 농경지와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바탕으로 촌락의 분동과정 속에서 기능분화로 이루어진다. 또한 노동공동체인 두레조직은 무속적 측면보다 농민의례의 의식으로 발현되어 마을공동체의 모임장소로 당산나무, 마을어귀 등에 물질적 형상화로 나타나는 장소성으로 설명된다.

이는 농민층 세력이 강한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농업생산)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조직원이 종속적으로 상호 의존하여 농민의례로 반영되어 모정이 호남지역에 발생하는 지역성의 요인으로 설명한다.

## V. 모정건축 조사

전북지역의 연구대상 모정건축의 위치와 입지, 모정건축 특성, 재료 등의 현황을 각 마을별로 조사하여 종합한다. 또한 마을조사 내용에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른 마을공동체의 조직특성과 경작지의 면적, 기타 사회·문화적 요인을 조사한다.

### 1. 평야지대 모정

완주군 후정리 비비정리는 100여 년 전에 수재의 피난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곳의 구릉지위에 이주된 마을이다. 농업생산조직으로 농악(두레)이 존재하였으며, 모정기능은 영농방식의 변화와 TV보급으로 인하여 공동노동조직의 쇠퇴와 함께 모정→마을회관→경로당으로 형태와 기능이 변화되었다.

과거 모정의 입지는 마을 내에 위치하는 자조모정으로서 나타난다. 규모와 재료는 과거의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모정의 칸수는 2\*2간의 부정형의 목조로 건립되었다. 건설과정과 설계과정 그리고 소유관계는 마을 주민에 의한 공동 건립된 공동소유재산으로 나타난다. 기능변화와 형태변화는 농업생산방식이 변화하는 197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새마을 운동의 시기와 일치한다. 이용시기와 이용자 현황은 농업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사철에 주로 사용되며, 남성이 주로 이용하였다. 모정건축의 형태변화와 더불어 모임과 회의 장소로서 마을회관이 1996년에 양로당으로 변화되었다.

**익산군 춘포면 덕실리** 모정은 넓은 경작지를 가진 평야지대 마을로서 마을 가구수는 대략 30호 정도로 과거 부촌으로 불리었다.

모정입지는 경작지 내에 위치하며, 규모 및 재료는 2\*3칸의 규모로 부정형의 목재가 사용되었으며, 지붕형태는 팔작지붕으로 후에 기와로 변경되었다. 건설과정, 설계과정, 소유는 주민에

의한 공동으로 건립된 공동재산이다.

사용시기와 이용현황은 농사철에 주로 사용되며, 모정기능의 축소에 따라 여름철 휴식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남성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기능변화는 마을회관의 신축에 따른 모정의 역할 축소로 나타나며, 이용시기에 따라 모임, 회의의 기능이 마을회관으로 이전된다. 인근 신평마을은 2개의 모정을 가지는데, 이는 경제적 부의 상징과 공동노동조직의 외적관계에서 장소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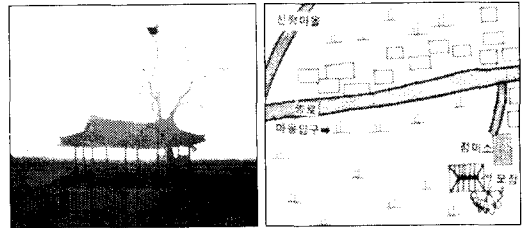


사진 1. 덕실리 모정 전경

**익산군 춘포면 오산리** 모정은 넓은 경작지를 기반으로 하는 구릉지 마을이며, 100여호 가구의 큰 규모 농촌마을이다. 모정입지는 과거 마을의 위·아래 두곳에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아래 장소에 위치한 모정을 1960년경에 재건립한 것이다. 모정의 규모 및 재료는 2\*4칸으로 팔작지붕으로 이루어 졌으며, 초가 → 양식기와 → 함석판으로 재료가 바뀌었고, 부정형의 목재건축물이며, 원래 모정의 건립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건설과정과 소유관계는 마을주민의 각출과 부지기증에 따른 건립된 공동재산이며, 사용시기는 농업과 관련된 농사철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경로당 건립으로 현재는 여름철 휴식의 장소로, 어린이의 놀이터로 기능이 축소되었다. 이용자는 주로 남성으로 나타나며, 모정 옆에 목욕탕을 건축하여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의 중심장소로 나타나며, 마을의 부를 상징하는 의미 또한 가진다.

## 2. 해안지대 모정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비득지 마을은 앞은 바다, 뒤쪽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해안가에 위치한다. 비좁은 농업경작지로 인한 열악한 생산기반을 가지며, 이에 따라 노동공동체인 두레조직이 약하게 나타나 농민에게 형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모정입지는 마을내 위치하며 팔작지붕의 형태로 규모와 재료는 1\*2칸의 정형의 목재, 벽돌, 콘크리트가 혼용되어 사용된 건축물이다. 건설과정과 소유현황은 면사무소 지원으로 1999년에 지어진 것으로 비득정이라고 하며, 마을공동체산으로 나타난다. 사용기능은 여름의 휴식장소, 모임 장소로 이용되며, 이용자는 남녀 같이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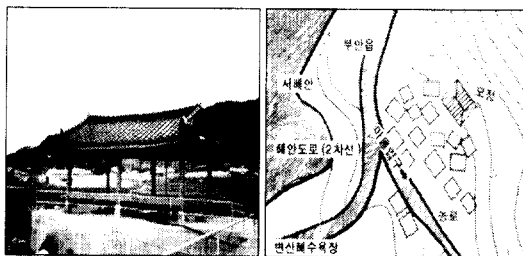


사진 2. 비득지 마을 모정 전경

부안군 변산면 지남 마을은 과거 산내면이었으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변산면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남 마을 역시 전면의 2-3Km앞에 바다가 위치한다. 지남 마을의 모정은 1\*2칸의 팔작지붕 형태로 비득지 마을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건립연대는 2000년이며, 1999년 마을회관 건축할 때 주민의 부지기중, 마을 주민이 모은 100만원, 면사무소의 1000만원 지원으로 건립되었으며, 인근 마을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에 따른 기존모정을 없애고 새로이 건설도 되는 경우가 있다.



사진 3. 지남 마을 모정 전경

부안군 계화면 돈지리마을은 1970년 이후 간척사업에 따라 농민들이 이주하여 만들어진 신생마을이다. 모정 입지는 마을내 위치하며, 건립시기는 이주시기와 같이 한다. 농사철의 휴식, 모임, 마을회의 장소로 이용되며, 주로 남성들이 이용한다. 건설과정은 평야지대 모정과 같게 나타나며, 재료는 부정형의 목재, 호박돌, 양식기와의 지붕을 가진 2\*2칸의 건축물이다.

해안지역에 발생하는 모정은 평야지대 모정건축과는 달리 마을공동체 조직의 반영물로서 모정이 자생적 발생되지 않으며, 근래에 정부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과 더불어 신축되고 있다. 건설과정과 설계과정은 마을주민공동의 소유로 각출과 토지기증으로 하는 공동건설과정을 가지나, 시공업자에 의한 건설과정으로서 정형재료 사용과 규격화된 모정형태를 가진다. 이에, 모정은 상징적 측면으로 나타나 다른 마을에서 정부지원으로 모정이 건설되면, 인근마을 역시 마을의 위상차원에서 건립을 추진하며, 마을간의 경쟁관계, 마을의 상징으로서 나타난다.

## 3. 산간지대

진안군 진안면 외오천 마을은 골짜기에 위치하는 작은 부락으로서 협소한 경작지를 가지고 있다. 모정은 청풍정이란 현판이 존재하며, 입지는 마을 어귀의 높은 지형에 위치한다. 건립연대와 건설과정은 40년전후로 설명되며, 형태적

으로 정자와 유사하다. 기능적으로 농사철에 휴식과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 4. 의오천 마을 모정 전경

비교적 정형의 재료로 건축되어 2\*2간의 팔작지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편액의 존재는 평야지대의 모정과 다르게 나타난다.

**신리마을 모정** 비교적 평야지대의 구릉지에 위치한 마을로서 모정의 입지는 마을 안에 있다. 1933년경 건립된 2\*2간의 팔작지붕으로 부정형 목재재료와 양식기와로 구성된다. 현재는 수퍼의 물건보관과 여름철 휴식장소로 기능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도로신설에 따른 농경지와 마을주거의 영역이 구분되어져 농사철의 휴식, 모임, 회의 장소로서 기능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서 휴식장소로 기능이 변화되었다. 또한 신리마을의 모정은 평야지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평야지대의 모정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인근 궁동마을은 육모정 형태로서 모정이 4~5년전에 건설되었다.

**장수군 계남면 선정마을**은 모정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당산나무가 마을주민의 모임장소, 휴식장소로 이용된다. 마을 어귀에 마을회관 건립 후에는 모임과 휴식기능을 마을회관이 담당한다. 당산나무는 무속적인 측면과 농민의례를 행하는 장소성을 가지나, 농업생산조직의 노동공동체 특성은 농민의례형태보다는 마을굿 형태를 띤다.



사진 5. 선정마을 마을회관 전경

**장수군 계남면 중방마을**은 일반의 산간지역 마을보다는 넓은 경작지를 가지고 있다. 1988년에 신축된 모정의 재료와 형태는 정형의 목재와 벽돌, 콘크리트 등이 사용되었으며, 기와의 팔작지붕 형태이다. 모정의 입지는 마을 내에 위치하며, 2\*2간의 모정으로서 해안가에 신축되는 모정의 형태와 유사하며, 현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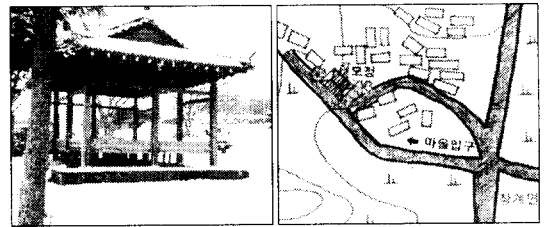


사진 6. 중방마을 모정 전경

전북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모정의 존재, 재료, 형태, 기능, 입지, 특성과 이용현황은 표3과 같이 나타나며, 또한 마을배치도에서 모정의 입지현황을 주변환경에 비하여 규모를 확대하여 표기하였다.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의 모정은 국가지원으로 모정이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연대기적 특성을 갖는 마을공동체의 생산물로 모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산간 또는 해안지대는 생산기반차이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산간, 해안지역의 모정의 존재는 문화 수용과정의 문화전파론으로 해석된다.



표 3. 조사대상 모정의 현황

	입지 형태	존재 유무	재료상 형태	기능	건립 연대
완주군 비비정	마을내	사라짐	부정형 목조	공동노동,모임, 휴식, 집회	100여년전
익산군 덕실리	장작지	유	부정형 목조	공동노동,모임, 휴식, 집회	비연대기
익산군 오산리	마을내	유	부정형 목조	공동노동,모임, 휴식, 집회	비연대기
장수군 신리	마을내	유	부정형 목조벽돌	공동노동,모임, 휴식, 집회	70년전후
장수군 선정		무			
장수군 증방	마을내	유	정형 목조벽돌	모임, 휴식	4-5년
부안군 비득지	마을내	유	정형 목조 con'c	모임, 휴식	2년전
부안군 지남	마을내	유	정형 목조 con'c	모임, 휴식	2년전
부안군 둔지	마을내	유	부정형 목조	공동노동,모임, 휴식, 집회	40여년전

이용자 현황: 주로 남성

몇몇 문화 발생지로부터 문화가 주변으로 전파될 때, 문화는 복합체이기 때문에 문화전체가 전파하거나 일부만 수용<sup>31)</sup>한다. 이는 모정이 평야지대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구문화가 혼재된 인간거주집단의 사회·문화적 성격과 경제적 요인이 수용과정을 통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기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호남 지역의 마을공동체 특성은 영남지역의 특성과 달리 농민의례의 형태로 발전하여 협동과 기능 분화과정에서 정자건축을 모방한 민중건축으로서 지역공동체 특성차이가 지역성의 한 요인으로 해석한다.

라포트는 비주택은 거의 토속적 형태로 간주할 수 없다<sup>32)</sup>고 하나, 종교적,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건축물로서 통상 주거보다 큰 상징적 가치와 내용을 담는 경우<sup>33)</sup>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모정건축을 마을공동체의 건축환경 구성요소와 상징적 의미로서 토속건축으로 해석한다.

모정건축의 건축특성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구하기 쉬운 건축재료의 사용으로 형태보다 기능적 요구에 충실한 건축이며,
2. 비전문가에 의한 건축, 직접적인 개방형의 건축, 비연대기적 특성의 건축, 익명성, 물리적 제약이 적은 건설과정과 설계과정으로 나타나는 건축이며,
3. 시간의 변화를 수용하여, 모정건축의 기능과 의미가 마을공동체에 적합하게 변화하는 건축이며,
4. 모정건축의 기능변화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상징적 건축의미의 변화로 표현되며, 지역공동체에 적합한 새로운 공간으로서 장소성을 제공한다.
5. 신축모정은 형태와 재료 등에서 차이점이 나타나지만, 모정이 갖는 의미와 기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민중전통을 이어받은 Modern Vernacular의 의미와 토착건축으로서 민중건축의

## VI. 종합 · 분석

모정건축의 발생은 조선후기 농업생산방식 변화, 신분제의 붕괴, 두레조직의 활성화, 촌락의 분화과정에서 정자를 모방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재지사족, 동족마을의 경우(장수, 장계 지역)는 모정개념보다 정자개념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예로서 산간지역 동족마을의 경우에는 모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모정형태, 기능 또는 00정(停)의 현판, 정형화된 재료의 사용, 등은 모정의 건축적 특성보다는 정자건축형태에 가깝다. 진안, 장수, 장계의 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의 모정은 평야지대의 모정건축 형태와 차이점이 있으나, 모정이 갖는 기능과 의미로서 해석하여 모정건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모정의 발생시기는 18세기 이후로 유추한다.

모정건축은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이를 문화전파론의 근간 내용으로 설명하면,

의미를 갖는다.

모정건축이 마을 내에서 갖는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종합, 분석된다.

1. 민중건축으로 촌락민의 삶을 반영하는 모임의 장소로, 공동체의식 발현의 장소로, 개인과 개인, 주거와 주거를 이어주는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갖는 장소성이다.

2. 마을 안의 우물공간이 여성의 공간이라면, 모정은 남성의 공간으로서 커뮤니티의 장소로 표현된다.

3. 모정의 건설과정과 설계과정은 마을공동체의 필요성과 자조적인 건축행위로서 주민의 기술수준이나 가치, 그리고 표현방식등이 모정건축에 표현된다.

## Ⅶ. 결론 및 제언

모정은 동일한 형태와 기능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물리적 형태에 대한 직접적이고 무의식적인 해석, 문화적인 욕구와 가치에 대한 표현, 그리고 개인의 주체성을 표현하고, 동시에 그 집단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건축적 의미<sup>34)</sup>와 마을에서 갖는 의미로서 마을과 일체화되는 건축적 의미를 가진다.

1. 모정건축은 공동체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반영한 상징적 건축으로 해석된다.

2. 발생시기는 18세기이후로 보며, 지역성 요인으로 호남지역의 생활공동체가 갖는 특성중 농민외세의 형태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3. 조건에 반응한 자조적 건축, 사회·문화적 조건에 적응한 토착적 건축으로서 민중건축의 의미를 갖는다.

제언으로서 마을구성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마을공동체의 산물로 나타난 결과물로서 뿐만 아니라, 비주거 건축물이 갖는 건축적 의미와 생활공동체의 산물로서 모정건축을 접근하면 다른 관점에서 촌락의 주거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 주

- 1) edited by I. Altman & C.M.Werner, 주거와 환경, 이경희외 3인, 문운당, 1996, p29- 46
- 2) 모정의 정의는 노동중의 휴식을 위한 장소성과 마을의 대소사를 논하기 위한 집회소의 기능, 동계와 결부된 종교적 기능과 교육문화적 기능을 갖는 건축으로 설명한다.
- 3) 전봉희, 전남지역의 정자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 5,
- 4) Rapoport, 주거형태와 문화, 신광출판사, p.36
- 5) Eleftherios Pavlides, "Vernacular Architecture in its Social Context; A Case Study of Eressos, Gree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p.4
- 6) 장성준은 주거의 의미를 실체론보다는 기능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술공학적 접근이 아닌 사회·문화론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 7)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1996 p.338  
두레는 17세기 후반의 이양법의 보급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주로 삼남지방에서 보편화되었다.
- 8) 국사편찬위원회편, 신한국사개설, 형설출판사, 1994. pp.218-259
- 9) 피터 손더스, 도시와 사회이론, 김찬호, 이경춘, 이소영역, 한울아카데미, 1998
- 10)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1996. p.99
- 11) Ibid, p.99
- 12) 김준형, 조선후기 면리제 성격, 서울대석사학위 논문, 1982,
- 13) 박경하, 왜란직후의 향약에 대한 연구, 중앙사론 제5집, 1987
- 14)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 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pp.100~101  
농업기술상의 변화와 두레발생을 이태진씨는 17세기의 이양법 보급과 함께 공동노동조직인 두레가 새롭게 부상, 활성화와 연계시켜 기층민은 상하합계의 동계조직내에서

- 당시 사회구조 현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사족중심의 동계, 동약조직내에서 하층민 지배에 대한 모순이 잉태되어 17세기부터 사족계와 촌계류 조직의 마찰이 노골화되었다고 설명한다.
- 15) Ibid, pp.103~109  
 임란 전후 촌락구성은 자연적 공동체로 수개 또는 10여개 자연 촌이 하나의 동계, 동약체계로 존재하여 本洞, 本里에 上族주거지역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지배, 통제하였다. 屬坊은 상·천민집단의 구성원으로 추측되며, 屬坊(자연촌단위)단위로 성장하는데 이는 촌계류조직으로 확인 가능하다.
- 16) Ibid p108. 이규대,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 17) 주장현, 노동과 굿, 학민사, 1989
- 18)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 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p.110
- 19) Ibid, pp.103~116
- 20) 한국민속 종합보고서-전남편-, 문화재 관리국, 1977
- 21)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송보영역, 1996, p.7
- 22) Ibid, pp.8~9
- 23) Ibid, p.21
- 24) 김성균, 건축.1998, 04, p.43
- 25) 전봉희, 전남지역 모정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 5, 전봉희, 전남지역의 정자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 5, 전봉희, 전남의 모정건축, 건축역사연구, 199 4,12  
 이용범외 2인, 경으로 본 정자건축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4, 6  
 김성균, 예천지방의 산수와 정자, 건축, 1998 .04.  
 전봉희, 동쪽부락의 건축사적 연구 (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 12.
- 박언곤외 5인, 사료정기 고찰에 의한 정자건축의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 1989, 10, 28.
- 26)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 사회사, 1996, pp.100-115
- 27) 마을공동체에서 대동국의 범위를 祭儀, 會議, 놀이로 구분한다.
- 28) 주장현, 굿의 사회사, 1995. p.196  
 대동회의는 대동국의 주체인 마을공동체 성원의 회의이자, 민중조직체의 마을굿과 두레굿으로, 대동회의는 통상 동회로 불리며 마을굿의 의례가 끝나면 열리는 대규모 마을회의 지칭하며, 정신적인 면에서 결속된 행정적 공동체회의 라면 두레 굿의 회의는 농업생산에 관련된 구체적인 노동적 공동노동회의로서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
- 29) Ibid, pp.213~17
- 30) Ibid, p.216
- 31) 기꾸치 도오시, 역사지리방법론, 1995 윤정숙 역 p.172
- 32)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송보영역, 1996, p.2  
 비주거 형태는 주택보다 설계 지향적이기에 전산업주의 시대와 농촌문화에 함께 공존하는 고도의 문화에 의하여 주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주택은 생활방식에 대하여 주택, 정주, 경관, 기념비적인 건물들의 체계를 관계시키기에 주거외의 건축물에서는 토속적 내용을 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 33) Ibid, p.15 재인용  
 Pierre Deffontaines, Geographie et Religions, 9th ed, pp.69-70
- 34) "Housing, Culture, and Design" ,Setha M. Low Erve Chambers editors, 주거문화연구회 역, 신광출판사 ,1994, p.24-46

## 참 고 문 헌

1. Setha M. Low Erve Chambers editors.  
Housing, Culture, and Design, 주거문화연구회역, 신광출판사. 1994.
2. 기꾸치 도오시, 역사지리방법론, 윤정숙 역, 이회문화사, 1995
3. 피터 손더스, 도시와 사회이론, 김찬호, 이경춘, 이소영역, 한울아카데미, 1998
4. 이규대, 조선후기 향약연구, 민음사
5. 주장현, 노동과 곳, 학민사, 1989
6.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송보영역, 1996
7. 이 해준, 조선시기 촌락 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8. 주장현, 곳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5.
9. 이병도, 고대남당고, 서울대학교 논문집, 제1집, 1954
10. 박경하, 왜란직후의 향약에 대한 연구, 중앙사론 제5집, 1987
11. 전봉희, 전남지역의 모정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4, 5,
12. 전봉희, 전남의 모정건축, 건축역사연구, 1994, 12,
13. 전봉희, 동쪽부락의 건축사적 연구(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9, 12.
14. 이용범외 2인, 경으로 본 정자건축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4, 6
15. 김성균, 예천지방의 산수와 정자, 건축, 1998.04.
16. 박연곤외 5인, 사륜정기 고찰에 의한 정자건축의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 1989, 10, 28.
17. 김준형, 조선후기 면리제 성격, 서울대석사학위 논문, 1982,
18. 한국민속 종합보고서-전남편-, 문화재 관리국, 1977
19. edited by I. Altman & C.M.Werner, 주거와 환경, 이경희외3인, 문운당, 1996,
20. 이태진, 한국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4,
21. 이가원 외4인,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92.